

2014년 6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손톱을 깎으며  
爪を切りながら

아무리 잘난 사람도  
いくら素晴らしい人でも

오른손이 오른 손톱을  
右手で右の爪を

왼손이 왼 손톱을 깎을 수 없어  
左手で左の爪を切ることができず

왼손과 오른손이  
左手と右手が

사이좋게 서로 깎아주고  
仲良くお互い切ってあげて

다듬어줘야 해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나는 너의 거울이 되고  
私はあなたの鏡になって

너는 나의 반사경이 되어  
あなたは私の反射鏡になって

서로 비춰주며 사는 거야  
お互い、照らして生きるのだ

- 김기원의 시집 《행복 모자이크》에 실린 시 〈손톱을 깎으며〉 중에서 -  
- キム・ギウオンの詩集〈幸せのモザイク〉に掲載された詩〈爪を切りながら〉より -

\* 그렇군요.  
\*なるほど

손톱을 깎는 일에도  
爪を切ることに

깊은 뜻과 법칙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深い意味と、法則と摂理が隠れています

사랑, 우정, 역시 손톱 깎는 것과 같습니다.  
愛、友情もやはり、爪を切るようなものです

서로가 오른손 왼손이 되고 거울이 되어  
お互いが右手左手になって鏡になって

다듬고 비춰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整えて、照らしてとも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른손 왼손은 하나입니다.  
右手左手は一つです

つめを切る 발음 재생 (표제어:きる)

손톱을 깎다

잘나다

[형용사]

偉い; 優れている.

見目よい; 器量がよい.

(反語的に) たいしたことない; くだらない; ろくでもない.

다듬다

[타동사]

整える.

(정돈하다) 手入れをする; きれいにする; 練る; 仕上げる.

(야채·초목 등을) (野菜の根などを) 切り取ってきれいにする; ...

반사경

[명사] 反射鏡. (=반사 거울)

비추다

[타동사]

(밝게 하다) 照らす.

(거울 따위에) 映す.

(견주다) 照らす; 鑑みる.

2014년 6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私を本当に好きな人

그때 토토는  
その時、トットは

왠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なぜか生まれて初めて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것 같은  
本当に好きな人と会ったような

기분이 들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気分になった。生まれて今までこのような

긴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기  
長い時間、自分の話を聞いてくれた人はなかった

때문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하품을 하거나  
からだ。その長い時間、ただ一度もあくびをしたり

지루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 토토가 얘기할 때처럼  
退屈な表情を作ったりせず、トットが話をするときにように

똑같이 몸을 앞으로 내민 채  
同じく体を前に出したまま

열심히 들어 주었다.  
熱心に聞いてくれた

- 구로야나기 테츠크의 《창가의 토토》 중에서 -  
- 黒柳徹子の〈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邦題)〉より -

\* 그가 나를  
\* 彼が私を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  
本当に好きなのか、そうでないのか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話を分ければ、すぐ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つまらない話も真摯にきいてくれて

길고 지루한 이야기도 열심히 재미있게 들어주는  
長くつまらない話も熱心に聞いてくれる

사람이면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人なら、間違いなく私を好きな人です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私が本当に好きな人の話は

20140624.txt

모두가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全てが興味深く楽しいです。

시시콜콜

[부사]つまらない[くだらない]ほど深く穿鑿するさま：根ほり葉...

진지하다 (眞摯—)

[형용사]眞摯だ；まじめでひたむきだ；眞剣だ.

2014년 6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땅 위를 걷는' 기적  
'大地の上を歩く' 奇跡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고,  
あなたが今この瞬間生きていて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一歩進んでいるのを感じることは

하나의 기적이다. 9세기의 유명한 선승인  
一つの奇跡だ。9世紀の有名な禅僧である

임제 선사는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林悌禅師は、'奇跡とは水の上を歩くことではなく

땅 위를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大地の上を歩くことだ'と言った。すべての人が

땅 위를 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大地の上を歩くが、大部分の人は全く

자유롭지 않게 노예처럼 걷는다. 그들은  
自由ではなく奴隷のように歩く。彼らは

미래나 과거에 붙잡혀서 자신들의  
未来や過去にとらわれて自分の

삶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生きている今この瞬間を

살 수가 없다.  
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

- 틱낫한의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중에서 -  
- テイク・ナット・ハンの〈どこにいても自由に〉より -

\* 병상에 누워 본 사람만이 압니다.  
\* 病床にあったひとだけが、わかります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はしを持つ力がどれだけ大きく偉大なのかを

우리는 매일 매순간 '땅 위를 걷는'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我々は毎日毎瞬間'大地の上を歩く'奇跡の中に生きている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더는 걸을 수 없는  
気づくことができないだけです。そしてさらには歩くことができない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地形に至ってようやく、悟り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今この瞬間に起きているなら、あなたは今

20140625.txt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とてつもない奇跡の中を生きています

현재의 삶이 곧 기적입니다.  
現在の人生がまさに奇跡です

(2010년 3월2일자 양코르메일)  
(2010年3月2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땅1

[명사]

土地.

(일반적인) 土; 地面; 地.

(논·밭) 田畑の総称.

선승 (禪僧)

[명사][불교] 禪僧.

임제 (林悌, 1549년~1587년)는 조선의 문신이다.

2014년 6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내게 맞는 삶  
私に合う人生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특별한 게  
私が歩いてきた道が決して特別なのでは

아니라는 걸 네가 꼭 알아주었으면 해.  
ないことを、あなたにぜひわかってほしい

난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야. 누구나 나처럼  
私は、例外的な人ではない。誰でも私のように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약간의 용기, 결단,  
自分の人生を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若干の勇氣、決断

그리고 자의식만 있으면 돼.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そして自意識だけがあればよい。自分だけの固有の人生を

사는 거 말이야. 진정한 삶, 내게 맞는 삶,  
生きていくのだ。本当の人生、私に合う人生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自分を、まっすぐ認識できる

삶을 사는 거지.  
人生を行くのだ

- 티찌아노 테르짜니의 《네 마음껏 살아라》 중에서 -  
- ティツィアーノ・テルツァーニの〈あなたは思う存分生きろ〉より -

\* 누구에게나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 誰にでも自分の道があります。

우리 인생은 모두 자기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我々の人生はずべて自分の道を探していく旅情です

자기 길을 찾아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해야 합니다.  
自分の道を探して、自分だけの固有な人生を想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내가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곧  
だから、私が私らしい人生になること、それがまさに

'내게 맞는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며  
'私に合う人生'을正しく生きることであり

'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私が私になること'です

(2010년 3월5일자 앙코르메일)  
(2010年3月5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나2  
[인칭대명사]私; 僕; 俺(\*助詞の '가' がつく時は...  
[명사]己; 我; 自分自身.

20140626.txt

-답다

[접미사] ‘…らしい’ · ‘…の価値がある’ · ‘…にふさわしい’ の意(体言(…



2014년 6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道に迷ってさまようとき

내가 길눈이 밝았다면,  
私が道に詳しかったら

헤매지 않았다. 헤매지 않았으면  
迷わなかった。迷わなかったら

어느 화려한 봄밤에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ある華やかな春の夜に友人と会うことができず

숨은 보물의 맛도 몰랐을 것이다.  
隠れた宝物の味もわからなかったら

- 최영미의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 중에서 -  
- チェ・ミョンミの〈道に迷って本当の旅行だ〉より -

\* 여행을 하다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 旅行してみれば、道に迷うときがあります

황망해져서 크게 당황하게 되고 방황도 하게 됩니다.  
慌てながら、大きく動揺して、さまよう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길을 잃은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道に迷うことが、すべて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뜻밖의 만남이 있게 되고 전혀 새로운 길도  
思いがけない出会いがあるようになり、全然新しい道も

발견하게 되니까요. 길을 잃으면  
発見するからです。道に迷えば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さらにほかの道が開けます

(2010년 3월8일자 앙코르메일)  
(2010年3月8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화사하다 (華奢—)  
[형용사] 華やかだ; はでやかだ; 派手で豪華だ.  
황망 (慌忙)  
[명사] 急を要するので慌てうろたえること.  
ろうばい [狼狽] 발음 재생  
당황; 허둥지둥함.  
방황 (彷徨)  
[명사] 彷徨.  
뜻밖  
[명사] 思いの外; 意外; 存外; 案外.

2014년 6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최은숙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ェ・ウンス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진짜 그대와 만날 때...  
本当のあなたと会うとき...

괴테는  
ゲーテは

'자기긍정- 타인긍정' 의  
'自己肯定 - 他人肯定' の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態度について、次のように言った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때, 우리는  
"我々が人にあるがまま接するとき、我々は

있는 그대로의 그보다 그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다.  
あるがままの彼より、彼をよくなくさせるのだ

그의 가능성대로 이미 된 것처럼 대할 때 우리는  
彼の可能性のまま、すでにそうなっているように、接するとき我々は

그가 되어야 할 모습대로 만들 수 있다."  
彼が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姿にすることができる"

우리를 이끌어가는 섯별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我々を導く新星は人々の間に存在する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신뢰이다.  
より良くすることに対する信頼だ

- 에이미 해리스의 《완전한 자기긍정 타인긍정》중에서 -  
- エイミー・ハリスの〈完全な自己肯定他人肯定〉より -

\* 다른 사람을 미리 재단하여  
\* 他の人を事前に裁いて

눈에 보이는 대로 선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目に見えるまま、まずい結論を出すときが多きです。

내 마음속의 진짜 나를 누군가 알아봐주기를 바라듯,  
心の中の本当の私を、誰かが理解してくれるのを望むように

다른 사람의 마음속 진짜 그를 알아보고 만날 때  
他人の心の中の本当の彼を、理解して会うとき

서로가 진짜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お互いが本当に出会う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気がする朝です。

셋별

[명사]

(明けの)明星; 啓明; 金星; 明星; ...

新星; 新しいスター.

미리

[부사] 予め; 前もって; まえかた; かねて; かねがね.

재단 (裁斷)

[명사]

裁斷.

裁き. (=재결(裁決))

[타동사] 布·紙などを型に合わせて裁ち切る事. (=마름질)

선부르다

[형용사] 手並みが未熟である; 不器用である; まずい; おぼつ...